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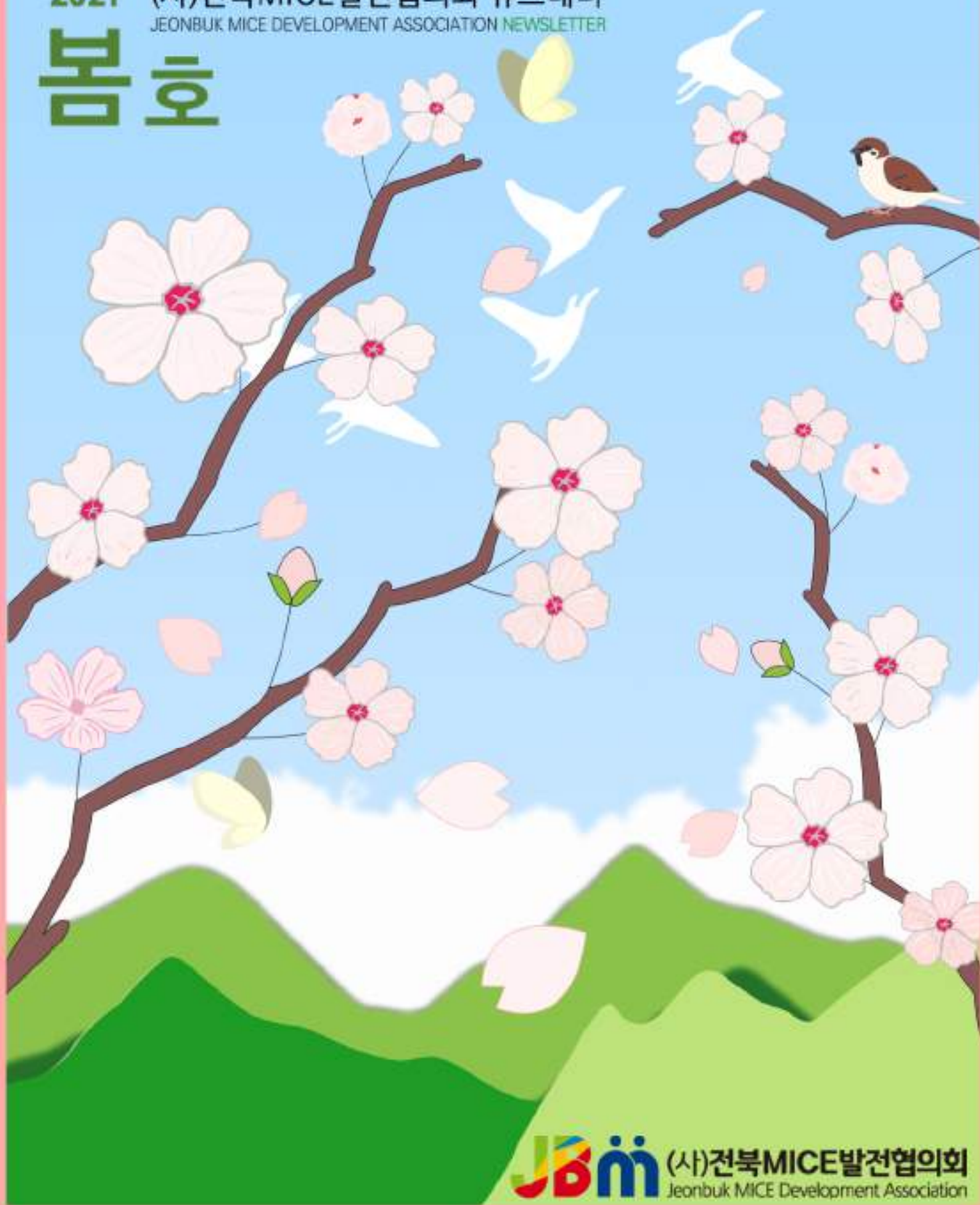
JBMN_{ews}

2021

(사)전북MICE발전협의회 뉴스레터

JEONBUK MICE DEVELOPMENT ASSOCIATION NEWSLETTER

봄호



(사)전북MICE발전협의회
Jeonbuk MICE Development Association

코로나19에 맞선 서울의 MICE 전략

지난 9월에 열린 ‘국제협회연합(UIA) 아시아·태평양 총회’가 시작되기 3개월 전, 서울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2020년 UIA아태총회가 온라인 행사로 전면 전환된 것. 관계자들은 마이스 도시 서울을 어떻게 브랜딩했을까.

서울의 숨가쁜 여정을 살펴본다.

언택트 신입사원이 된 마이스 베테랑들

서울관광재단의 직원은 이미 마이스 베테랑들이었지만, 처음 시도하는 버추얼 회의라는 과제 앞에선 신입사원에 불과했다.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가상세계에 회의현장을 만드는 일은 단기간에 건물을 새로 지어 올리는 것과 같았다. 설계도면부터 만들어 보자는 심정으로 ‘사례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5월 당시 국내에서 개최한 바이오 코리아 행사를 비롯해 해외에서 간간이 치러지던 온라인 행사들을 들여다봤다. 버추얼, 하이브리드 등 온라인 기반 행사 플랫폼들의 유형을 나눴고, 유형별 장단점을 도출했다.

이때만 해도, 온라인 행사의 경우 화상회의 프로그램만을 사용하는 ‘웨비나’부터 라이브·녹화 영상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송출하는 ‘스트리밍’ 방식 혹은 별도 웹사이트를 제작해 연사들의 강연과 전시 참가사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사례들이 주를 이뤘다.

해외 사례도 참가자들이 3D 가상공간에 자신과 똑 닮은 아바타로 접속해 실시간으로 강연을 듣고, 대화를 나누는 소셜 VR이 그나마 가장 진화된 형식의 온라인 회의였다.

이런 회의는 대체로 온라인에서 강력한 온라인 행사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던 업체들이 시도했다. 자신들의 기술을 회의와 이벤트에 접목하면 되니 그만큼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서울관광재단 관계자는 그러나 “소셜VR 형태의 플랫폼은 유저가 클라이언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접속해야 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PC의 성능이나 인터넷 속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니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엔 한계가 있어 보였다”고 지적했다.



가장 적합한 플랫폼 포맷을 찾다

UIA 총회는 기술력보다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초점이 맞춰진 행사였기에 서울은 다른 방안을 찾아야 했다. 버추얼 서울 플랫폼의 잠재적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의 MICE 행사 참가자인 데다, 여러 국가에서 동시 접속하며, 연사의 강연뿐 아니라 네트워킹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어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서울관광재단은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고 △도시 마케팅이 가능하며 △네트워킹(게이미피케이션)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점을 세웠다.

서울의 눈에 들어온 건 ‘웹GL(Graphic Library)’이었다. 이 기술은 아바타로 실시간 대화를 나눌 수 없지만, 360도로 그래픽을 보여주면서 동시에(웹 기반으로 제작하는 방식이라) 인터넷 주소(URL)만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났다. 모바일,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로도 접속 가능하니 소셜VR의 형태보다 인터넷 환경이나 컴퓨터 성능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온라인 회의 솔루션을 정했고, 이젠 웹GL이라는 플랫폼 포맷의 뼈대에 마이스 행사(국제회의)라는 살 붙이는 작업에 들어갔다. 개발사를 선정하는 데 집중하면서 단계별로 각 주체의 역할을 정리했다.

서울관광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버추얼 서울 플랫폼을 기획하고 온라인 행사를 개최하려면 △기획·총괄, △3D그래픽 제작과 플랫폼 개발, △행사 운영 등 최소 3개 부문의 참여 주체가 필요하다. 기획·총괄을 맡은 서울관광재단은 케이스 스터디를 시작으로 개발사 발굴·선정, 플랫폼 내 공간과 기능 기획, 버추얼 이벤트 기획, 국내외 홍보, 360VR 영상(16편) 제작, 주최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등에 착수했다.

다양한 참여 주체가 협업하다

3D그래픽 제작사는 서울의 유니크베뉴를 3D 가상 공간으로 구현했다. 이를 바탕으로 티저 영상, 행사 후의 애프터 무비도 제작했다.

이와 함께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탑재시켜 구동하는 것, 게이미피케이션 기능을 개발하는 것과 버추얼 서울 플랫폼의 안정화, 행사 중 기술지원, 행사 후 통계자료 추출 등 세부실행 활동이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면서 빅데이터를 수집했다.

다양한 실험적 시도로 이목을 끌어난, ‘젊은 PCO’ MW네트웍스는 개발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버추얼 서울 플랫폼이 기획된 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조정했다.



VR로 구현한 서울



VR로 구현한 서울

이처럼 다양한 참여 주체들의 협업으로, 버추얼 서울 플랫폼에서 개최된 온라인 행사 UIA 서울총회는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개최지의 도시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선보였고, 이후 관광, 전시 분야까지 ‘온라인 마이스’를 기대케 했다는 평가다. 서울관광재단은 버추얼서울 플랫폼을 체험용으로 편집해 서울컨벤션뷰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온라인 행사를 유치·개최하려는 주최자와 기획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버추얼 서울 데모버전’과 3D그래픽 제작 소스 그리고 활용 가이드를 함께 배포하고 있다.

김지현 서울관광재단 MICE기획팀장은 “버추얼 서울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고안된 것”이라며 “오프라인 행사를 다시 개최하기 전까지 버추얼 서울로 더 많은 온라인 행사를 개최하고, 보다 더 많은 잠재적 MICE 참가자들에게 서울을 경험시켜 MICE 도시 서울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서울컨벤션뷰로 공보자료〉

서울컨벤션뷰로 홈페이지:

<https://korean.miceseoul.com/index>



VR로 구현한 서울 컨퍼런스홀

'한국관광 데이터랩' 으로 본 1년간 국내관광 변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가 지난 2월 17일 오픈한 관광특화 빅데이터 플랫폼, '한국관광 데이터랩 (datalab.visitkorea.or.kr)'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20년 전국 지역 방문자수는 2019년도 대비 평균 18% 감소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관광지, 비대면 자연관광지, 캠핑장, 수도권 공원 등은 오히려 방문자수가 늘었다. 또한 관광업종에 대한 지출도 2019년도와 크게 달라진 양상을 보였다. 지금부터 그 변화를 확인해보자.



양양 하조대 일출

■ 서울, 대구 등 사람 많은 곳 피하고 숨겨진 명소 찾아...

증가율 하위 5위		
순 위	기초지자체명	2019년도 대비 증감률
1위	인천 중구	-37%
2위	경북 울릉군	-31%
3위	서울 중구	-29%
4위	서울 서대문구	-27%
5위	서울 종로구, 대구 중구	-26%

이동통신 빅데이터(KT)를 활용해 기초지자체별 방문자수를 분석해 본 결과, 인천공항이 위치한 인천 중구(-37%)와 경북 울릉군(-31%) 방문자가 가장 크게 줄었고, 서울 중구(-29%)와 서대문구(-27%), 종로구(-26%), 대구 중구(-26%)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강원도 양양군은 2019년도 대비 방문자수가 10% 늘었고, 섬이 많은 인천 옹진군도 7% 증가했다. 그 외 밀양시(7%), 고흥군(6%), 부산 기장군(5%) 등이 증가 추이를 보였다. 청정관광지로 인식하는 숨겨진 곳의 방문 수요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증가율 상위 5위		
순 위	기초지자체명	2019년도 대비 증감률
1위	강원 양양군	10%
2위	경남 밀양시	7%
3위	인천 옹진군	7%
4위	전남 고흥군	6%
5위	부산 기장군, 부산 북구, 경기 연천군, 경북 고령군	5%

* 그 외 2019년 대비 방문자수 증가 지자체 : 강원 고성군 4%, 경기 구리시 4%, 경기 가평군 3%, 경기 안성시 3%, 경기 남양주시 2%, 충남 태안군 2% 등



강원도 화천 겨울축제

가장 큰 감소율 '3월 대구', 가장 큰 증가율 '5월 강원'

시기별(광역자치체 레벨)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았던 '2020년 3월(-36%), 9월(-28%), 12월(-26%)에 지역 방문자수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고, 가장 감소폭이 컸던 기간과 지역은 3월 대구(-57%)와 경북(-44%), 4월 제주(-44%), 8월과 12월 서울(-41%)이었다.

한편 작년 연중 방문자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기간과 지역은 5월 강원(10%)이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간이었던 10월에 강원(5%), 전남(8%), 전북(8%), 경남(8%), 경북(8%) 등에 일시적으로 방문자수가 2019년도 대비 증가했다. 또한 12월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 겨울축제 축소 등 겨울여행 특수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2019년도 대비 방문자수가 26%(특히 강원 -28%)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행업, 면세점, 문화서비스 등 관광업종 지출 크게 줄어, 골프장 지출은 18% 늘어

관광업종 소비지출은 2019년도 대비 크게 줄었다.

2020년 BC카드 사용자의 관광업종 지출 변화는 여행업이 -90%, 면세점 -90%, 영화관, 극장 등 문화 서비스는 -73%에 달했다. 대중교통 이동을 대신할 수 있는 렌터카 지출은 2019년도 대비 57% 증가했고, 체험형 레저스포츠 소비는 2019년도 대비 6% 감소하는 데 그쳤다.

특히 충북(19%), 제주(4%), 강원(3%)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레저스포츠 소비가 오히려 증가했는데, 이는 골프장에서의 지출 증가가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출처 : 한국관광공사〉



시민의 숲 1963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재생사업

한번쯤 들어봤을 전주종합경기장이
시민의 숲이 된다는 이야기.

시민의 숲 1963.

3만 7천여 평에 달하는 종합경기장 부지 가운데 3만 평 정도의 부지에 생태자연공원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을 짓는 사업을 말한다. 나머지 7천 평은 임대계약을 맺고 서신동의 롯데백화점이 영화관과 함께 이전할 예정이다.



시민의 숲

마이스산업 혁신기지

그런데 왜 전주시는 롯데백화점을
꼭 집어서 임대를 해주는 진가?

이유는 2012년 전주시와 롯데쇼핑이 맺은 협약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전주시는 종합경기장을 새로 지어 이전하고 이 자리에 전시 컨벤션과 호텔을 건설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모집했는데, 롯데쇼핑이 최종 선정되었다. 당시 롯데쇼핑은 경기장 부지의 약 52%에 달하는 1만 9천여 평을 양여받아 백화점과 쇼핑몰, 영화관을 건설하고, 200실 규모의 호텔도 세우기로 했다. 그 대가로 950억원 규모의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을 지어서 전주시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이것이 전주시와 롯데쇼핑 간 이루어졌던 기부대양여협약이다.

전시컨벤션센터는 국비를 지원받아 시 예산으로 건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복합쇼핑몰 입점을 놓고 소상공인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극심하게 일었다. 당시 지역상권 영향분석 용역자료에 따르면, 롯데쇼핑몰 입점에 대한 시민찬성은 68.4%로 높았지만 지역상권 잠식 우려도 60.8%에 달해 선뜻 사업을 진행하는 데엔 어려움이 따랐다.

아울러 이 사업은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건부 협약이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그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차기 시장의 과업으로 남게 되었다. 2014년 7월 취임한 김승수 전주시장은 롯데복합쇼핑몰 입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복합쇼핑몰 입점이 지역상권에 미칠 영향과 종합경기장 부지의 상징성이 크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인봉리 운동장



1963 제44회 전국체전



1980 제61회 전국체전



현재 전주종합경기장

고아원 아이들로부터 시작된 모금운동

1963년, 제44회 전국체전을 유지한 전라북도는 시작부터 자금난이라는 난관에 부딪혔다. 난관이 닥치자 전북 도민들은 일제히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어느 고아원 아이들이 성금을 보내온 것을 계기로, 모금운동이 들불처럼 번져 일어났다.

초등학생부터 공무원, 기업 총수까지 함께한 성금 3천5백만원이 순식간에 모였다. 250만 도민이 힘을 합쳐 만든 결과물이었다. 이러한 뜻을 담아 “이 경기장을 부수지 말라”는 비석이 세워졌고,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즉, 경기장은 전북 도민의 마음이 합쳐진 전북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경기장이 사라지고 복합경기장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이라는 게 전주시가 고수하는 입장이다.

이와는 별개로 롯데쇼핑측에서는 원래대로 부지를 넘겨받기를 요구했다.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과 담보대출 등으로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까닭이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전주시는

‘의회동의를 못 마친 협약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에 나섰다. 그리고 종합경기장을 시 예산으로 건립하는 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승인받았다.

사업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전주시는 다섯 차례 이상 롯데에 협약 해지통보를 했지만, ‘협약을 해지하려면 상호협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해지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종합경기장 건설에 관한 권으로 전주시는 2016년 행정안전부에 경기장 건립 투자심사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재원대책과 롯데와의 민원 해소 등 몇 가지의 보완 사항을 지시, 하달해왔다. 이 지시사항을 3년 이내에 이행하면 경기장 건설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걸렸다.

조건의 이행 기한은 2019년이였다. 6월에 예정된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받으려면 늦어도 4월까지의는 전라북도에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만일 탈락하면 차후 3년 이내에 경기장 건설을 재추진하는 일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다.



협상의 원칙 3가지를 제시하다

전주시는 새로운 안을 마련하기 위해 롯데쇼핑과 끈질긴 협상을 이어갔다.
협상의 원칙은 3가지였다.

- ✓ 첫째, 시민의 땅을 매각하지 않고 지켜내는 것
- ✓ 둘째, 시민들의 기억이 쌓인 종합경기장을 재생하는 것
- ✓ 셋째, 판매시설 입점을 최소화하여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것

긴 협상 끝에 토지소유권을 롯데에 넘기지 않고, 판매시설 부지에 한해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상호 협의를 타결했다. 롯데쇼핑은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을 건설하여 전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다. 신규 백화점 개점이 아닌, 기존 백화점이 이전하는 방식을 취했기에, 유치되는 판매시설도 원안에 비해 대폭 줄게 되었다. 경기장 시설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앞으로 백화점의 규모가 확장되는 만큼 지역상권과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하겠다. 시민의 숲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이다.

전주종합경기장을 시민의 공원으로 만들어서 돌려주겠다는 전주시의 약속은 지금부터다. 3만평의 부지에 주변 환경을 연계한 생태자연공원과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앞으로 전북의 성장을 이끌어갈 MICE의 숲을 만들어 명실상부한 전주. 나아가 전라북도의 랜드마크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민들과 함께 추진단을 꾸려 의견을 수렴해, 또 다른 소망과 역사의 터전으로 만들어 갈 **시민의 숲 1963**, 전북도민 모두의 숲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오직 전라북도에서만, 2020 코리아유니크베뉴

코리아유니크베뉴

코리아유니크베뉴는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체험하거나 장소성을 느낄 수 있는 특색 있는 국제회의 장소를 의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MICE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을 대표하는 장소를 ‘유니크베뉴’로 선정,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한국소리문화전당과 한옥호텔 ‘왕의지밀’이 2020년 코리아유니크베뉴로 이름을 올렸다. 전북의 코리아유니크베뉴를 알아본다.

01.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31
Tel: 063-270-8000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야경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전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이다. 2001년 개관 이래로 꾸준히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왔다. 매년 가을에 열리는 전주세계소리축제는 단연 이곳이 메카. 뮤지컬, 판소리, 창극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이곳에 전북도민들은 사랑과 신뢰를 아끼지 않는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자신하는 장소는 국제회의장이다. 각종 회의, 심포지엄 및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 동시통역 등 첨단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이외에도 중회의장을 갖추고 있어 규모 있는 국제회의와 다양한 행사의 진행이 가능해 실질적인 활용성에 중점을 둔 코리아유니크베뉴 플레이스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전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이다. 2001년 개관 이래로 꾸준히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왔다. 매년 가을에 열리는 전주세계소리축제는 단연 이곳이 메카. 뮤지컬, 판소리, 창극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이곳에 전북도민들은 사랑과 신뢰를 아끼지 않는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02. 왕의지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춘향로 5218-20
Tel: 063-284-1004

전주라 하면 떠올리는 테마, 바로 한옥이 아닐까.

왕의지밀(至蟻)은 왕의 침소를 뜻하는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 위치한 고품격 한옥호텔이다. 6,000여 평의 넓은 대지에 여러 채의 한옥이 처마를 잇대고 늘어선 풍경은 왕의지밀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장관. 한옥의 멋은 살리면서도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는 한옥호텔이다. 조선왕조의 이름을 딴 64개의 객실을



왕의지밀 전경

보유하고 있다. 이곳의 컨벤션센터는 6개의 크고 작은 컨벤션 공간과 첨단 장비를 지원하고 있어 대규모 학술 회의부터 기업 연수까지 행사 인원과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한식당, 퓨전음식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전북 MICE 산업의 유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 기대해본다.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2021 전북관광 6선

1. 백제 최대의 사찰 익산 미륵사지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97
09:00~18:00 / 월 휴무
063-859-5824



2. 양반의 삶을 엿보다 전주 한옥마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99
09:00~18:00 (경기전)
주요 박물관 월 휴무, 경기전 무휴
063-282-1330



3. 자연을 품은 호남의 영산 내장산국립공원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산로 936
09:00~18:00 (케이블카)
일 휴무
063-538-7875~7



4. 자연의 예술 한 조각 남원시립 김병중미술관

전라북도 남원시 함파우길 65-14
10:00~18:00 / 월 휴무
063-620-5660



5. 호변을 따라 흐드러진 꽃 옥정호 구절초테마공원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매죽리 571
구절초 축제 매년 10월 초
연중무휴
063-539-6171



6. 솟아오른 한 쌍의 봉우리 마이산도립공원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09:00~18:00
연중무휴
063-430-8751~3



2021년 전라북도 마이스행사 개최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지원대상 및 기준

전라북도에서 국제·국내회의*를 개최하는 학·협회, 단체,
기관 또는 법인

* 워크숍, 세미나, 학술대회, 포럼 등

(전체 일정 중 회의·교육 등 4시간 이상)

시·군에서 인센티브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금의 50% 지급

- 숙박인원 : 내국인(관외)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
- 기 간 : 2일 이상 진행되는 행사
(도내 숙박시설 1박 이상)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2만원, 최대 지원액 2천만원

▶ <https://han.gl/47VER>

전북만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마이스 장소(유니크베뉴)를 찾습니다

전라북도는 차별화되고 매력적인 마이스 행사 장소 발굴
및 다양한 마이스 개최지 제공을 통한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라북도만의 유니크베뉴를 새롭게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 간 : 2021. 3 ~ 6월
- 선정 대상 : 국제·국내 마이스 행사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등이 가능한 장소
※ 마이스 전문회의시설 및 일반호텔 등은 제외
- - 사군, 전북문화관광재단, 한국관광공사
전북지부 등에서 추천
- 선정규모 : 3개소

▶ <https://han.gl/nenkf>

(사)전북마이스발전협의회 회원 혜택



휴먼 네트워킹

다양한 인적 교류를
통한 MICE관련
관계자 간의
교류 추진



MICE 관련 포럼 운영

전북의 MICE 관련
포럼 행사를
운영함으로써
업계 동향 파악



협회 의결권

협의회에서
진행되는 각종
결정에 대한
의결권 확보



사업 우선권

협의회가
주최 · 주관하는
각종 관광행사 및
정부지원사업 등에
관련한 연계사업
우선권

가입 절차

회원가입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제출

이사회 검토 및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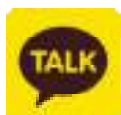
입회비 및
연회비 납부

회원가입 완료

문의 사항

※ 회원 가입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문의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전북MICE발전협의회 홈페이지(<https://www.jbm-mice.com>) 자료실 양식 참고
- 제 출 처 : jbm7150880@naver.com
- 주 소 : 전북 전주시 산월2길 37 태정빌딩2층 (사)전북MICE발전협의회
- 전 화 : 063-715-0888



카카오톡
전북마이스발전협의회



인스타그램
@jbm_mice



페이스북
Jeonbuk Mice